



제주 시설공단 설립 계획 표류끝에 무산

반대 표결 의원들 “거대 공룡조직 탄생...비용만 늘것” 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폐회...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도의 '제주 시설공단' 설립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끝내 무산됐다.

23일 열린 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돼 1년 넘게 표류해왔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시설공단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

난해 6월 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제출했지만 당시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수정가결)했지만 전임 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지난 7월 후반기 취임한 좌남수 의장 역시 상정을 보류하면서 표류해왔다.

도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

대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위탁할 제주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날 '시설공단 조례안'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과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기대했던 예산 절감은 안되고 운영효율화는 요원하고 거대 공룡조직만 탄생해서 경직성 경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인원은 910명 규모로 제주도 최대 공기업이 되고, 한해 투입되는 영업

비용도 1100억원이나 된다”면서 현재 제주의 재정체력이 공단의 경직성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긴박한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공직자들을 향해 “올해 여러 고비를 잘 극복한 만큼 다시 닦힌 위기도 도민들의 저력을 믿고 다시 한번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신문 구독하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최신 뉴스와 심층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를 챙기시고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 적용 시기 : 2021년 1월 1일 결제분부터
- 혜택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혜택
- 내용 : 현금·신용(직불·선불)카드·지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를 공제
- 대상 :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인 사람
- 문의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www.culture.go.kr/deduction

한라일보 · 한국신문협회

‘제주학생인권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교육위가 내놓은 ‘대안’ 의결 학생들이 청원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도의원들의 ‘대안’으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이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이었다.

당초 학생인권조례안은 고은실 의원(경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했지만,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궁남)가 이를 부의하지 않고 교육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찬반 갈등이 깊어 교육위원회가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항들을 삭제·수정할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변경한 주요 내용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구제·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인권옹호관’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먼저 인권옹호관은 타시도 교육청

에서 인권옹호관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 제주도교육청 소관 부서 내에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상담조사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학생인권구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다. 폐기된 조례안에는 성적(性的) 지향이나 임신·출산 등 20여가지 권리가 담겨진 반면 교육위가 만든 대안에는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은 물론 빈곤, 다문화가정, 학교 부적응학생 등 9가지 권리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표결이 끝난 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존중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은범기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속도 낼 것”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서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당이 협의 끝에 최종 확정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당 지도부에 주문했다. 내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의사일정 협의 지연으로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 못한 민생 개혁 핵심 정의의 위법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면서 “산업재

해 가족들이 흑한에도 의사당 밖에서 단식농성하며 처리를 기다리는 중대재해법, 당정 협의된 4·3특별법, 택배 노동자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등은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토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수정안을 확정된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내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조속히 의사일정을 잡고 개정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부미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된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해녀 10명중 7명 “80살이 돼도 은퇴 생각 없다”

제주도 어가실태조사 결과

해녀 은퇴의향을 묻은 질문에 73.7%가 “만80세가 되어도 없다”고 답했다. 은퇴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80.6%)’였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호남지방 통계청이 23일 공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 통계 결과다.

조사 결과 도내 해녀들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연령은 ‘만80~85세 미만’이 52.4%, ‘만85세 이상’이 32%로 나타났다.

해녀 활동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바다환경 변화로 인한 자원 고갈(62.3%)’이 1순위로 꼽혔고, ‘조업으로 인한 질병 증가(14.1%)’, ‘조업중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12.1%)’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도내 어업 경영주 중 어선사용 어가 평균 어업총수입은 2억 8000만원, 경영비(갑가상각비 제외)는 2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보유(2019년 12월 31일 기준)어가는 82.2%로 평균 부채 금액은 3억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어선비사용 어가의 경우 평균 어업총수입은 751만원, 평균 부채 금액은 6900만원이었고, 양식어업 어가의 평균 어업

총수입은 7억3200만원, 평균 부채 금액은 10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관계자는 “어가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분석한 이번 조사 결과가 제주 어가 실태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계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해수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어가 경영주(표본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생산자 조직, 교육, 판매, 고용, 정책, 어업수입 및 경영비, 부채 등 총 9개 부문 4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은지기자

내년 공무원 시험 8·9급 6월·7급 10월 시행

내년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잠정)이 결정됐다. 8·9급 필기시험은 6월 5일, 7급 필기시험은 10월 16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따른 원서접수기간은 8·9급 공개시험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7급은 7월 5일부터 9일까지다. 전국 지자체 동시 시행으로 중복 원서 접수는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 “2021년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잠정)”을 23일 공고했다. 확정 시험일정 및 구체적인 시험 정보를 담은 “2021년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내년 2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원활히 돕기 위해 내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잠정)을 미리 공지했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성산리마을회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입주신청

신청대상
성산초등학교의 타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1명 이상 이거나 2021년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학부모

- 면적 : 2층~5층 (세대별 확장형 25.4평), 8세대
-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중앙로65번길 5
- 준공일 : 2020년 12월
- 임대료 : 년 400만원
- 보증금 : 100만원
- 신청기한 : 8세대 입주 마감까지
- 문의처 : 성산리사무소 ☎ 782-2241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강력한 신맛억제 효과!!!

산도 DOWN 당도 UP

신맛제거제

판매처 : 명농원
대표 김달식 010-3697-5624
진영기업(주) 제주지점

당일생산! 당일발송!

통영 청정바다 생굴

믿을 수 있는 통영굴수협
정식등록 지정중도매인23번!
도매업인데 비싸서 되겠습니까?
더 이상 비싸게 사지 마세요!
품질 좋은 최상급 생굴을 무대비용을 줄여
저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가격 부담을 낮춰 드립니다.

최상급 생굴 5kg 小 中 大
최상급 생굴 10kg 小 中 大

생굴을 먹을 수 있는 철이다! 굴~ 하면 통영이다!!
겨울철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집에서 맛볼 수 있는
산지직송 통영굴이 택배로 배송된다!

주소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49-1 청정수산
계좌 : 수협 776-62-037473 이선곤

주문 전화 010-2110-8506 / 010-3551-2352

당일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부담없이 가격 문의주세요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남 유옥종 010-5015-1951